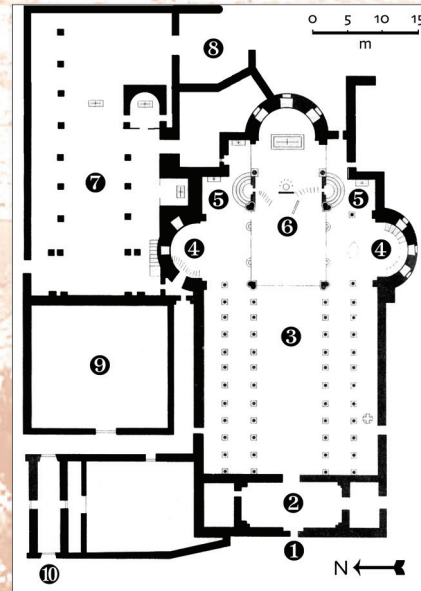


복음서 이후 예수님 탄생지에 관한 가장 오래된 증인은 철학자이자 순교자인 성 유스티누스이다(2세기 후반 무렵). 그는 본디 팔레스티나의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성경의 스켄, 현재 나블루스) 출신이었다. 성 유스티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 마을에는 머무를 곳이 없어 요셉은 주거지 근처 작은 동굴에 멈추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아 구유에 눕혔다.”고 기록하였다. 임시변통의 숙소로 동굴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 지역 관습일 수도 있는데, 이는 신약 외경 『야고보 원복음』에서 입증되며(3세기), 오리게네스도 이를 다시 언급하였다(3세기). 나중에 이 동굴은 베들레헴의 모든 성전 역사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기원후 325년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 성당이 지어진 지 오래지 않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가 세운 화려한 건축물이 이 동굴을 에워싸게 된다. 역사가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이것들을 당대의 업적들로 언급한 대로이다. 386년 성 예로니모는 로마의 성녀 파올라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대성당 근처 동굴에 정착하여, 수도생활을 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서방 교회의 공인본인 그 유명한 라틴어 성경(Vulgata)을 번역하는 데 헌신하였다. 4세기의 대성당은 화재 이후 6세기에 더 크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장되었다. 십자군 시대에는(12세기) 황금과 자개 모자이크로 성당 양쪽 벽을 장식하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신약성경의 남쪽벽은 마태오 복음 그리고 북쪽벽은 루카복음에 따른 장면들(라틴어)과 초기 교회 일곱 개의 일치 공의회에서 결정된 중요 내용들(그리스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당의 서쪽벽 아래쪽에는 타원형 안에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여주는 ‘이사이의 그루터기’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장식해 놓았다. 벽면 왼쪽에 장식되어 있는 천사의 발밑에는 라틴어와 시리아어 글씨로 화가이자 작가인 바실리오

(Basilio)의 이름과 더불어 새겨져 있다. 1934-5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발굴 작업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성당 모자이크 바닥의 상당한 유적들이 빛을 보게 되었는데, 대성당 중앙과 제대 주변에 화려하고 정교한 모자이크의 일부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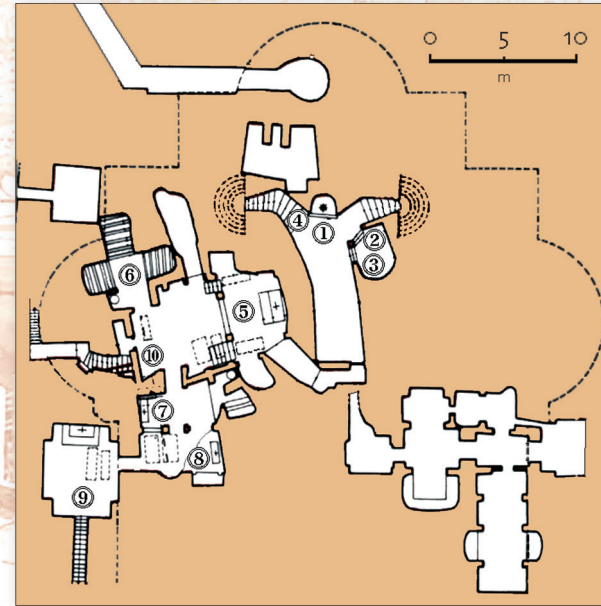
성지 도면



탄생 대성당:

1. 겹손의 문 2. 나르텍스 3. 본체 4. 측랑 5. 동굴 입구 6. 탄생 동굴과 구유정당 7. 성 카타리나 성당 8. 제의실 9. 중세 회랑 10. 작은형제회 수도원 입구

고고학 도면



대성당 지하 동굴 도면:

1.탄생동굴 2. 동방박사 제대 3. 구유 4. 카타리나 성당에서 동굴로 내려가는 계단 5. 성 요셉 동굴 6. 무죄한 어린이들 제대 7. 크레모나의 성 에우세비오 무덤 8.성 예로니모 기념비 9. 성 예로니모 독방 10. 동굴에서 카타리나 성당으로 이어지는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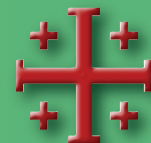
1347년 뒤부터 베들레헴에 살던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주님 탄생 성당과 거룩한 순교자 성녀 카타리나 성당 옆에 수도원을 마련하였다. 성녀 카타리나 성당은 12세기 이후에 생겨나 점차 확장되었고, 주로 가톨릭 공동체의 예식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 그곳에서 성 예로니모의 동굴로 내려갈 수 있다.



작은형제회 수도원
Tel.: 970-2-274.24.25
Fax: 970-2-277.61.71

카사 노바
Tel.: 970-2-274.39.81
Fax: 970-2-274.35.40

www.custodia.org/en/sanctuaries/bethlehem



성지 개방 시간
여름: 6.30-19.30
겨울: 5.30-17.00

성 카타리나 성당
여름: 6.00-19.30
겨울: 5.00-17.00

이곳은, 엄숙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명심하십시오.

유다

베들레헴(Bethlehem)

주님 탄생 성당과 주님 탄생 동굴

성 예로니모 동굴과 성녀 카타리나 성당



전승에 따르면, 주님 탄생 동굴은 예수님께서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곳이다. 이 동굴 위에 십자가 형태의 대성당이 세워지는데, 탄생 동굴 위쪽에 제대를 놓고 신자석쪽으로 사열 중대의 돌기둥들을 세워 지붕을 떠받치게 하였다. 출입문은 나중에 몸을 숙이도록 높이를 낮추어, 이 ‘겹손의 문’을 지나 대성당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 탄생 동굴은 성 예로니모를 기념하는 다른 동굴로 이어진다. 대성당 옆에는 앞에 회랑을 둔 성녀 카타리나 성당이 자리한다.



[루카 2,1-19]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

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마태 2,1-12]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

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마태 2,13-18]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 구세주가 나시고 하느님의 너그러우심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느님의 권능과 자비를 믿으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바칩시다.

1.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교회가, 동정 마리아가 기적으로 잉태하고 낳으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이 땅의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이 세상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 안에서, 저희가 참된 평화와 구원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
 3. 모든 정치인과 의료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본 가치를 존중하여 임신 순간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어머니가 될 이들을 돕게 하소서. ◎
 4.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깨우침을 얻어, 예수님의 탄생이 선한 뜻을 지닌 이들에게 전한 평화의 메시지를, 반갑게 맞이하게 하소서. ◎
 5. 순례자들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들레헴에 내린 은총이 저희를 도와, 마리아로부터 구세주의 선물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
- ✚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바치는 애원을 들어주소서. 당신 아드님께서는 성부와 함께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